



입단 당시만 해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kt 투수 조무근은 올 시즌 중반 마무리투수로 올라서며 1점대 방어율을 달성하고 꿈에 그리던 태극마크를 달았다. 마지막 남은 kt의 우승을 위해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스포츠동아DB

두 가지 꿈을 이룬 조무근 마지막 남은 한가지 소원

스토리 베이스볼

국가대표 되기·1점대 방어율 이미 달성
“신인왕 꿈은 없었다…팀 우승만 남았다”

프로에 갈 수 있을지 못 갈지 졸업 후 진로가 불투명했던 대학생 투수가 있었다. 그러나 큰 꿈을 품고 있었다. ‘국가대표 되기, 1점대 방어율 투수 되기, 그리고 팀 우승.’ 무척이나 어려워 보이는 목표지만 꿈은 클수록 좋다고 했다. 가까스로 프로에 입단한 이 투수는 1년 동안 몇 가지를 이룰 수 있었을까.

생각보다 많은 신인들이 단 한번도 1군 무대에 서지 못하고 사라진다. 1년의 시간은 무척 짧았지만 야구의 매력은 언제나 생각지도 못한 반전에 있다.

고교 2학년 때까지는 포수였다. 하루 종일 쭈고 앉아 공을 받다보니 무릎이 종종 아팠다. 중학교 때 한번, 고교 때 한번 무릎 통증 때문에 운동을 잠시 쉬었다. 그 때마다 키가 훌쩍 자라 190cm를 넘어 198cm까지 됐다. 중학교 때는 농구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기도 했다. 키가 커

지면서 고교 2학년 때 투수로 변신했다. 그러나 공은 빠르지 않았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최고 스피드는 130km에 머물렀다.

상원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에서 투수로 4년을 보낸 조무근(24)은 대학 시절 별명이 ‘노예’였다. 에이스가 아니었기에 이길 때나 질 때나 자주 마운드에 오르면서 생긴 별명이다.

2015년을 앞두고 2명의 투수가 신생팀 kt의 특별우선지명을 받았다. 이후 10명의 1차지명선수가 발표했다. 신인드래프트에선 5라운드까지 50명, 그리고 1라운드 종료 후 3명의 kt 특별지명까지 53명의 이름이 불렸다. 특별지명과 1차지명을 더하면 65번의 선발이 끝난 뒤 성균관대 4학년 조무근의 이름을 kt가 불렀다. 1군 데뷔를 앞둔 kt에는 2년 동안 선발한 경쟁한 신인들이 많았다. 스포트라이트는 특별지명으로 뽑힌 주권과 홍성무에게 쏟아졌다.

2014년 11월 제주 오라구장에서 진행된 kt의 마무리캠프에서 조범 감독은 “다른 젊은 투수들도 큰 가능성을 갖고 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투수들이 많다. 158km를 던지는 안상빈도 있고, 조무근이라고 키 큰 대졸 투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연히 관심은 158km를 던지는 안상빈

에게 쏠렸다.

그러나 조무근은 묵묵히 훈련하고 있었다. 큰 키를 활용해 공의 무게를 더하라는 특명을 받고 정명원, 전병호 투수코치와 함께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새롭게 바뀌었다. 하체는 단단해졌고, 큰 키에서 나오는 팔 스윙을 이용해 148km의 빠른 공과 더불어 스플리터로 착각될 정도로 낮차가 큰 슬라이더를 던질 수 있게 됐다. 타자들은 당황했다.

올 시즌 조무근은 kt의 마무리투수로 올라서며 71.1이닝 동안 방어율 1.88을 기록했다. ‘1점대 방어율 투수 되기’라는 꿈을 첫 시즌에 달성했다. 그리고 1점대 방어율은 ‘2015 WBC(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프리미어 12’ 국가대표 유니폼을 안겼다. 대회 우승이라는 감격도 누렸다.

24일 KBO 시상식에 조무근은 신인왕 후보로 참석했다. 그는 구자욱(삼성)의 신인왕 수상을 축하하며 웃었다. 그리고 “야구선수로 3가지를 꿈꿨다. 신인왕은 그 꿈에 없었다. 1점대 방어율, 국가대표 선발, 그리고 팀 우승이다. 벌써 2가지를 이뤘다. 이제 딱 하나 kt의 우승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nush@donga.com

부자구단 양키스·다저스 “이제부터 긴축재정”

통신원수첩

다저스, 특급선발 대신 유망주 지키기로
양키스 구단주 “사치세 내지 않겠다” 선언

미국은 26일(현지시간)부터 추수감사절 연휴에 돌입했다. 이 때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약 한 달간 미 전역은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메이저리그 최고 명문 구단 뉴욕 양키스와 LA 다저스 경영진에게는 시베리아의 찬 바람만큼이나 매섭고 혹독한 겨울일 뿐이다.

두 부자 구단이 올 시즌 지출한 연봉은 무려 5억달러였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양키스는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단판승부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스에게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다. 다저스는 뉴욕 메츠의 벽에 막혀 2년 연속 디비전시리즈에서 탈락하는 고배를 마셨다.

이에 비해 1985년 이후 30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캔자스시티 로열스는 올 시즌 개막일 기준 선수단 연봉이 1억 1660만달러에 불과했다. 다저스를 무너트린 메츠를 단 4경기 만에 제압하고 월드시리즈 우

승을 차지한 로열스는 특출한 스타플레이어는 없지만 포지션별로 풀 샵 팀 없는 전력을 유지하고 있어 월드시리즈 2연패를 노리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우승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진리를 확인해서일까. 두 부자 구단이 스토브리그에 참여하는 자세가 크게 달라졌다. 잭 그레이니키, 데이비드 프라이스, 조니 쿠에도, 조던 짐머맨 등 특급 선발투수들이 FA(프리에이전트)로 나와 있지만 시큰둥한 반응이다.

다저스 입장에서 어떻게든 그레이니키를 잔류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그러나 32세라는 나이가 걸림돌이기 때문에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줄 수만은 없다. 지난 여름 다저스는 트레이드 마감시한에 앞서 프라이스 또는 폴 헬밀스(텍사스 레인저스)를 영입할 수 있었지만, 포기했다. 팀의 특급 유망주를 내주지 싶었기 때문이다.

양키스는 신인드래프트에서 실로 오랜만에 1라운드 지명권을 행사했다. 전체 16번째로 UC LA 출신 투수 키스 캐프릴리안을 낙점했다. 내년 드래프트에선 22번째 지명권을 보유하고 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양키스는 다이나마 마사히로, 제이코비 엘스버리, 브라이언 매켄 등을 영

입하며 4억8500만달러를 썼던 팀이다. 돈도 돈이지만, 스타급 선수들을 수집하기 위해 신인드래프트 상위 지명권을 늘 다른 팀에 넘겨줬다. 그러나 이제는 팀 운영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 할 스타인브레너 구단주의 목표는 1억8900만달러 이하로 연봉 총액을 낮추는 것이다. 더 이상 사치세를 내지 않겠다는 뜻이다.

지난 시즌 막판 다저스의 연봉 총액은 3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레이니키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내년 시즌 연봉 총액을 3억달러보다 2억달러 쪽에 가깝게 만들겠다는 것이 다저스 구단 수뇌부의 방침이다. 현재 연봉보다 1억달러 가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FA 영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처지가 아니다.

아무튼 다저스나 양키스와 같은 부자 구단들이 돈으로 우승을 살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승을 위해 돈은 필수 요소다. 그러나 로열스의 경우처럼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닌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하다. 지난 수년간 비효율적으로 돈을 펍펍 썼던 다저스와 양키스가 그들의 호연장담대로 과거의 어리석은 행태를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손건영 스포츠동아 미국 통신원

여자농구는 지금 세대교체중

각팀 주전선수 1~2명은 1990년대생
박혜진·박하나 등 팀 중심선수로 우뚝

8월 중국 우한에서 열린 제26회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대표팀은 젊은 선수들 위주로 꾸려졌다. 목표로 했던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권은 놓쳤지만, 세대교체가 궤도에 올랐음을 알렸다.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에서도 각 팀은 젊은 선수들을 대거 기용하며 새로운 동력을 찾고 있다.

대부분의 팀들은 경기에서 외국인선수들과 더불어 국내선수 7~8명을 활용한다. 이 가운데 1990년 이후 출생한 선수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베스트 멤버 중 1990년 이후 출생한 20대 초중반의 선수들이 1~2명은 있다. 우리은행 박혜진(25)과 이슬아(23), 삼성생명 박하나(25), KEB하나은행 강이슬(21), KB스타즈 홍아란(23) 등은 이미 리그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세대교체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식스맨으로 뛰는 어린 선수들이 성장에 속도를 낸다면 여자프로농구는 전체적으로 가용인원이 늘어날 뿐 아니라 새로운 스타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교체를 하다보니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팀이 경기력에 기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 시즌 초반은 더 그렇다. 젊은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는 시간이 팀마다 늘어나면서 경기의 질적 부분이 약간 하락했다. 경험이 적고, 기량이 완벽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선



우리은행 박혜진 삼성생명 박하나



KEB하나은행 강이슬 KB스타즈 홍아란

수들은 실수가 나오면 한 없이 무너지기도 한다. 이 같은 현상이 잦아지면서 각 팀의 경기력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이 농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WKBL 관계자는 “세대교체를 진행하다보면 나올 수 있는 현상이다. 모든 팀이 새로운 동력을 찾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라운드를 거듭하면서 각 팀의 경기력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KBL에 뛰어난 이후 처음 주장을 맡은 삼성 포워드 문태영이 대표팀 차출 이후 지각 합류해서도 동료들을 이끌 실뽕 챙기며 감독과 팀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캡틴의 책임감이 바꾼 문태영의 플레이

삼성 주장 맡은 후 팀플레이 살아나
사비 털어 동료 챙기는 등 솔선수범

삼성 포워드 문태영(36)은 KBL 무대에 뛰어난 이후 처음으로 주장을 맡고 있다. 남자농구대표팀에 선발돼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느라 팀 합류는 늦었지만, 동료들과의 유대감을 높이려고 애쓰고 있다. 포 코트 위에서 심판 판정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과거와 달리 올 시즌에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삼성 코칭스태프는 주장으로서 팀을 위해 노력하는 문태영이 신통방통한 모양이다. 삼성 선수들도 문태영의 새로운 모습에 적지 않게 놀라고 있다.

삼성 이상민 감독은 26일 잠실체육관에서 벌어진 ‘2015~2016 KOC 프로농구’ 3라운드 모비스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문)태영에게 주장을 맡겼는데 지금까지는 정말 잘해주고

있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이 감독은 “우리 팀에 어린 선수들이 많은데 태영이가 나서서 따로 자리를 갖고, 간혹은 사비까지 털어 동료들을 챙기는 등 팀을 위해 애쓴다. 경기장 안에서 팀을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자제하는 모습이 좋다”고 칭찬했다.

삼성 선수들도 이 감독과 같은 생각이다. 임동성(25)은 “비 시즌에 (문)태영이 형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다. 대표팀에서 오래 머물다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서먹한 부분이 있었다. 태영이 형이 먼저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편해졌다”며 웃었다. 이어 “원정에서 이동할 때 태영이 형이 후배들을 다 이끌고 가서 커피도 사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온다.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한 두 마디의 말이 팀워크를 다지는 데도 좋은 것 같다. 주장이라 책임감이 강한 것 같다”고 덧붙혔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남자핸드볼대표팀 올림픽 꿈 멀어지나?

3·4위권 이겨도 유럽강호와 PO 다투야

남자핸드볼대표팀의 올림픽 출전 꿈이 멀어져가고 있다.

아시아에서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직행 티켓은 단 1장이다. 그 1장을 가리기 위한 대회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데, 한국은 26일(한국시간) 준결승전에서 홈팀 카타르에 26-30으로 패했다. 이로써 한국은 28일 예정된 바레인과의 3·4위 결정전으로 밀려났다. 바레인전이라도 이겨야 실낱같은 희망이 남는다. 이 대회 2위와 3위는 내년 4월 펼쳐질 플레이오프(PO)에 나갈 수 있다. 그러나 PO 출

전국들이 유럽의 강호들이라 난관이 예상된다. 유럽 예선에서 올림픽 직행 티켓을 따지 못한 나라들도 세계 수준에 견주면 막강한 전력이기 때문이다.

최근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남자핸드볼은 레전드 윤경신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앉혀 중흥을 노리고 있으나, 오일머니를 앞세워 쿠바와 유럽 출신 용병들을 국가대표로 영입한 카타르에 당하고 말았다. 윤 감독은 취임 후 강한 체력에 근거한 속도를 강조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2000시니올림픽부터 2012런던 올림픽까지도 이어서 올림픽 연속 출전 또한 최대 위기를 맞았다. 김병준 기자 gatzby@donga.com